

중국·러시아 눈치 보는 '글로벌 중추 국가'

태평로



이용수
논설위원

이들 전 라이징더(賴清德) 대만 총통 취임식에 한국 정부는 경축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아미티지 등 전직 장·차관으로 사절단을 꾸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전체가 고위급 대표단을 타이베이에 보냈다. 총 51개국이었다. 대만 전체 수교국(12국)의 4배가 넘는다. 이들은 별도의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 서울에선 아무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6월이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유엔군 한국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대만), 소련이었다. 소련이 표결에 불참한 것도 천운이지만 대만 없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과거 인연은 차치하고서라도 대만은 한국과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외교 용어로 '유사 입장국' (like-minded group)이다. 이런 나라들이 50개국 된다. 익숙한 말로 '자유민주 진영'이다. 이들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냈

대만 총통 취임식은 외면하고 푸틴 취임식엔 참석한 정부 자유민주 진영과 계속 엇박자 중·러 환심 사도 결국엔 독 될 것

다. 한국만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대만은 섭섭하고 유사 입장국들은 의아했을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을 때가 연상된다. 그때도 동참한 나라가 50~51개였고 한국만 발을 뺐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고 있다. 2주 전 모스크바에선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이 열렸다. 크렘린궁은 각국 대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자유민주 진영, 즉 유사 입장국 대부분은 취임식을 보이콧했다. 이웃 국가를 침략하

고 정적을 제거한 독재자가 영구 집권을 지속하는 자리라고 봤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의 의미도 담았다. 한국 정부 생각은 달랐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도 참석시켰다. 프랑스 대사도 함께 라만함은 좀 덜했는지 모르겠다.

임기 초반의 단선적 외교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겠다. 대만 총통 취임식 1주일 전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을 설득해 이달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성사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흘러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얼마 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중국을 겁내는 공중증(恐中症)과 '러시아 포비아'는 한국 외교의 고질병이다.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건 유사 입장국의 단합된 언행이다.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칭하는 나라다. 안보리를 능멸한 푸틴 대관식에서 손뼉 치고 대만 총통 취임식을 모른 척했던 관란하다. 당장 중국·러시아의 환심을 살 순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 외교에 독(毒)이 될 것이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안만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보이콧한 행사였다. 중국의 화답은 무자비한 사드 보복이었다. 비싼 수입료를 치르고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외교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성 [191]

진도 맹골도 군부무침



몇 년 전 이야기이다. 밤새 산모를 위한 긴 마른 미역을 만드느라 힘들었던 모양이다. 세상 모르고 끓어떨어졌다 눈을 떴다. 섬마을 아침은 쾌적함을 넘어 청아하다. 골목을 지나 바닷가로 나오니 주민 한 분이 바닷가에서 무엇을 세척하고 계셨다. 함지박에 넣고 치대더니, 바닷물에 다시 행겼다. 거무튀튀한 껍데기가 벗겨지니 흰 속살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레 같은 모양을 한 주인공은 군부였다. "군부이라고 해요. 무척 좋으면 먹을 만하요"라며 어머니가 맛을 보라며 한 개를 입에 넣어주었다. 정말 식감과 맛이 먹을 만하다.

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방에 기와를 얹는 것처럼 여덟 개의 판이 겹쳐 있다. 군부는 우리나라 전 해역 갯바위에 서식하는 조간대 생물이야. 바닷물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며 갯바위 표면 미세 조류를 섭식한다. 해녀들이 사용하는 밧줄이나 칼 등을 이용해 갯바위에서 떼어낸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밤상에 올릴 만큼 큰 군부를 만나기 어렵다. 맹골도처럼 먼바다나 인적 없는 섬에 가야 좋은 군부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수 추도에서 도선 취항을 기념하는 자리에 잡혀왔다가 귀한 군부무침을 맛보았다. 진도군 독거도에서도 군부무침을 만났다. 역시 바다가 거칠고 인적이 드문 섬이다. 이런 곳에서는 군부나 고통을 삼

아서 반찬으로 올렸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틈이나 절벽 등에 붙어 자라기에 채취하는 것이 모험이다. 솔에 넣고 삶은 군부를 거친 솔을 사용하거나 빨래하듯 치대서 껍데기를 벗긴다. 그리고 양념을 해 무쳐 먹는다. 약간 딱딱한 전복 같다. 거복손이나 샷갯조개와 달리 군부는 채취와 손질이 어려워 오롯이 어민들 몫으로 남아 있다. 군부의 각 판이 겹쳐지면서 생긴 주름이 마치 섬 노인 삶의 흔적과 닮았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문재인, 뭘 좀 알고 떠들라... 뭘 풀 뜯어먹는 소리만 요란한가

회고록엔 온통 김정은 믿는다는 소리뿐

※ **현 정부 비판 4개항 실패보니** ※

- ① 외교안보정책 너무 이념적? ... "당신네가 더 했어"
- ② 위기 낮추는 노력 안한다고? ... "살은 소대거리 쌍육 듣는게 누구?"
- ③ 김정은이 억울해 한다고? ... "일편단심 계속 그렇게 두둔하슈"
- ④ 윤석열은 균형 외교 소홀했다? ... "윤 탓 아니라, 김정은 꼼수 때문"

문재인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을 냈다. 그는 말한다.

1.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과도하게 이념적이다.

그러나 ★ **이념 과잉**은 좌익의 경우가 훨씬 더 세다. 그들은 1980년대에 자신들의 이념을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NLPDR)]이라 불렀다.

그이념은 ★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 **대한민국을 극좌 전체주의 일당 독재로 끌고가고** ★ **유엔사 해체,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 **한·미·일 협력 대신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비(非)좌파는 **이념과 사상 자체를 ★ 모르고 ★ 경시하고 ★ 무용지물로 친다.** [이념적 맹목]들이 셈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과도하게 이념적**이라 해야 맞을까?

2. 현 정부는 남북대화 위기를 낮추려 하지 않는다

뭘 뜯어먹는 소리? 김정은이 남북대화를 끊어버린 건, 문재인 당시 때였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김여정**이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당신을 **[살은 소대거리]**라고 깔아뭉갠지? 그래놓고 이제 와 **[대화단절]**이 윤 대통령 탓이라고?

3. 김정은이 "미국 등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자유인과 당신은 100%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자. 당신은 **김정은**을 믿고 살라. 자유인들은 그

가 품으로 메주를 쏟대도 믿지 않겠다.

4. 윤석열은 균형 외교를 소홀히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포위되어 있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선 ※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 서방 자유세계나, 유라시아 전체주의와]를 택해야 한다.

김정은은 ★ 핵을 보유하고 ★ 중국·러시아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 **한·미 핵(核) 공조**를 하고 ※ **해양 자유 세계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이 언급한 [균형 외교] 어찌고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또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최근 들어 대화는 고사하고 통일이란 개념 자체도, 동족이란 개념도,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남북의 거리를 자꾸 좁혔다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류(韓流)가 더 많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체제 해체 효과를 핵으로도 막지 못한다. **김정은**은 이를 극도로 경계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끝났다. 우리 탓 아니다. **문재인**은 이 모든 걸 제대로 알고서 나 떠들라. 모르고 떠들면 망신한다.

문재인은 김정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그것이

[최초의 영부인 외교]라고 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문제 부장관 등 다른 공직자를 초대했다는 주장도 있다.

말 문다해에 관한 소문도 있다.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그녀에게 돈을 보냈다는 등. 이 건 확인된 것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재명·조국, 정의로운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尹 대통령, 누추함 어우 하나 없다]

류근일 칼럼: 이재명 조국당 찍은 유권자들 [보수·자유당 지지자들에게 묻는다]

[이재명·조국 새상이] [윤석열 새삼보다 나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어서 만들라

류근일 칼럼: 젊은은 '정사투쟁'

무너진 1자유·보수 우파+합리적 개혁 진영 재건 5가지 원칙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5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